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모 두 발 언

2023. 3. 1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먼저, 오늘
제1차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TF 추진배경

우리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의 빠른 성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실물경제와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우리 경제가 명목GDP 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글로벌 수출 6위의 무역강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주식시장 시가총액과 상장회사 수도
세계 10위권 내로 성장*하였습니다.

* 상장주식 시가총액 : 2.2조불(세계 9위), 상장기업수 : 2,318개사(세계 8위)

은행산업도 세계 100대 은행에
국내은행 6개가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 KB, 산은, 신한, 하나, 기은, 우리 ('22년 The Banker지 기준)

하지만, 이제 우리 금융산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로 접어들었고
인구구조 고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실물경제 발전에만 기대서는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시장의 포화상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외연 확대,
즉 글로벌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글로벌화 및 발전은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1월말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금융의 선진화와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특별히 주문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Ⅲ. TF 운영계획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산업 글로벌화 TF」를 통해
다음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금융회사의 해외 직접진출 및
해외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인한 투자수익률 저하를 극복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로
성장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투자자금의 유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험자본 등 기존에 자금배분이 부족했던 분야에
글로벌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국내진출시 어려움을 겪는
세제·노동·교육 등 비금융 이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금융분야에서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과제는
정부와 금융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쉽게 해결되지 못한 과제인 만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TF를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글로벌화는 단기간에 달성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향후 지속 추진할 정책비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TF 이후 개최될 금융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정책제안과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수렴하여
금융산업 글로벌화의 비전을 마련하겠습니다.

* ① 자본시장, ② 핀테크·혁신, ③ 금융지주, ④ 보험, ⑤ 여신, ⑥ 은행 등

또한, 기존의 접근방식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기 위해
금융위 내부에 금융 국제화 대응단*(가칭)을 신설하여
TF를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국제화 대응단은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국제업무 경험이 많은 에이스 직원을 배치*하겠습니다.

* 국장(지원근무) 1명, 과장 1명, 사무관 2~3명 내외 배치 예정

마지막으로, TF 논의결과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과를 위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영업사원이 되어
해외 금융당국과 협의하고
우리 금융산업 및 금융회사들을 세일즈 하겠습니다.

IV. 마무리 말씀

언어·문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제조업에 비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화는 우리 금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및 나아가 실물경제의 성장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며,

범 금융권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첫 회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